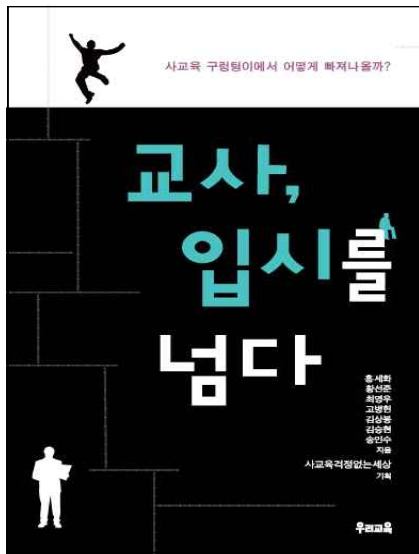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 | 전화 02-3142-6770 | 전송 02-3142-6772 | www.uriedu.co.kr

담당 : 장원 02-3142-6770(312) apunk@uriedu.co.kr | 박세중 02-3142-6770(310) sejoong@uriedu.co.kr

사교육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사교육을 바로잡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 교사 등대지기 학교를 통해 배우다



제 목 : 교사, 입시를 넘다

기 획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은이 : 홍세화, 황선준, 최영우, 고병현, 김상봉,
김승현, 송인수

체 제 : 138*210 | 372쪽 | 15,000원

분 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에세이
인문학 > 교양

독 자 : 교사 및 학부모

발행일 : 2014년 2월 26일

ISBN : 978-89-8040-951-8 [03370]

학벌 사회, 공교육 붕괴, 선행 학습 문제.....
사교육 열기로 인해 붕괴하는 학교교육을
새롭게 살리려는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책

《교사, 입시를 넘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는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진행한 ‘교사 등대지기 학교’에서 일곱 강좌를 뽑아 내 묶었다. 인문, 교육, 사회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있는 강사 일곱 명(홍세화, 황선준, 최영우, 고병현, 김상봉, 김승현, 송인수)이 우리 사회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교육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누구나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진 한국 교육의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철학과 가치를 들려준다. 공교육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진정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교사와 학부모 들에게 권한다.

한국 사회를 뒤덮은 큰 문제 ‘입시 경쟁’ 어떻게 바꿀까?

홍세화, 황선준, 최영우, 고병현, 김상봉, 김승현, 송인수

우리 교육의 현실을 뜨겁게 고민해 온 강사들이 펼친 일곱 번의 강의
교사 등대지기 학교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뜨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생각들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대안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교육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선행 학습 금지법 제정으로 사교육 관련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선행 학습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을 넘어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책 《교사, 입시를 넘다》는 선행 학습 금지법 제정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입시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진행한 ‘교사 등대지기 학교’ 강연 모음이다. 강좌를 진행한 강사들은 사교육 과잉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없이 공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통해서 진정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강사부터 실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제대로 일으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교사까지, 독자들은 우리 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 교육철학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까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아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교사 등대지기 학교는, **사교육 문제에 동감하고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좌**이다. 이번에 책으로 엮은 강좌들은 홍세화, 황선준, 최영우, 고병현, 김상봉, 김승현, 송인수 강사가 학벌 문제, 스웨덴 교육, 컨설팅 전문가가 본 교육, 경쟁 중심 진로 교육의 문제 극복, 비대칭적 관계를 통한 자유의 교육,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중심 사고로 이행하는 전략, 교사가 행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바로 설 수 있는 자세 등에 대한 것으로, 각 강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 등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이전부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 교육 진영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알기 쉬운 강의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더불어 단순히 **사교육 문제뿐 아니라 교육철학의 문제와 학교 현장에서 점점 더 열정을 잃어 가는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 가운데 사회적 부분과 교직 사회 내부의 부분, 인문학적 성찰이 녹아 있는 철학적 부분과 실증적 부분까지, 여러 분야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강사들의 논의 속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진정 아름답게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을 통해서 교사들은 과도한 사교육 문화로 무너진 교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열정을 찾을 수 있고,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통해 교사로서 자신의 위치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한국 사회와 다른 프랑스, 스웨덴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사교육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하고, 경쟁만 우선시하는 교육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홍세화 - 한국의 학벌 사회를 말한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했고 자녀들이 프랑스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교육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프랑스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교육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굳어져 온 학벌 사회를 비판하는 데에 대학 줄 세우기가 없는 프랑스의 교육 문화는 좋은 참조점이 된다. 서열 체계를 넘어서서 대학에서 비로소 진정한 공부를 하는 프랑스 교육을 이야기하며, 이들이 강조하는 인문 사회과학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는 독서를 중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문화가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되었을 때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말하면서 결론으로 현행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생각의 주머니를 주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인문 사회과학 교육을 강조한다.

황선준 - 선진국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

스웨덴 감사원 및 국가 재무 행정원, 스웨덴 국립 교육청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강사가 자신이 생활했던 스웨덴의 모습을 교육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스웨덴의 평가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한다. 스웨덴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이 강화되어 있고, 교사가 많은 권한을 갖는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우리와 같은 단순 암기식이 아닌 논술식 구조로 중학생도 논문을 써야 하는 과제를 받는다. 이러한 특성이 스웨덴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거침없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학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학력을 분석, 평가하는 데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최영우 - 교사, 미래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다

컨설팅 전문 기업 대표인 강사가 컨설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사들이 진정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대화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습과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면서 어떻게 진정한 학습에 이를 것인지 여러 가지 사례와 더불어 말해 준다.

고병현 - 점수, 등수 중심 진학 지도를 벗어나라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한 한국 교육을 비판한다. 직업 교육도 몇 가지로 단순화된 희망 직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성장 신화와 경쟁 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왜곡된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가져야 할 능력들이 획일적으로 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문이라는 키워드로 교육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생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상봉 -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자라는 자유의 교육

현재 한국의 학교는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주제로 서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암기 위주로 쓸모없는 지식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만남과 주제로 서는 데 가장 필요한 교육적 가치는 '자유'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김승현 - 입시 사교육 제로 그 해답을 찾다

실증적인 견지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도를 이야기한다. 특히 입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을 정리해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사교육 없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백 회에 걸친 토론회와 발표 등을 통해서 진행한 법 제정 운동과 선행 학습을 금지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통계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에 더욱 힘을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송인수 - 새로운 교사 운동이 나타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과 단체의 철학을 소개한다. 교사 출신으로 지나온 날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던 교사와 학생들을 소개한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한 이야기와 함께 사교육이 없어지고 힘을 잃은 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 들어가는 말에서 -

우리는 '입시 경쟁'이라는 큰 괴물과 싸우는 새로운 교사 운동이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단순한 근거 때문입니다. 무릇 생명은 결코 누르는 힘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흙더미가 무거워도 밀어도 밀음로 뿌리를 내린 후에 생명은 끝내 때가 차면 고개를 쳐들고 새순을 튀우고야 맙니다. 그런 생명의 기운이 교사들 가슴속에 여전히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입시를 넘는 새로운 실천에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 가슴속에 파고들어서,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삶을 자청하는 교사들이 1천 명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그런 교사들 없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

전문가의 함정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에요.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음악도 마찬가지로요. 음악에 접근하게 만들고 무언가 쓰고, 뭘 만들고, 3차, 4차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115쪽 중에서

학생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아니듯이, 그럼 장사꾼은 나쁘고 교사는 고상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상업도 다 훌륭한 직업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남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은 대등해요. 대등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 적어도 교육적인 관계로 만날 때 제가 감이고 그분들이 읊입니다. 절대 대칭적이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지도받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돈을 내고 학교에 오겠어요. 겸손하게 학생으로서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비대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218~219쪽 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성적표 속에는 교사의 전문가적 권위가 등백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이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받은 성적표를 보면 음악 과목을 네 명이 수강했는데 그중 한국 학생이 일등입니다. 네 명 가운데 일등이니 대단할 리 없지요. 하지만 영국 교사는 서술 평가 속에 '탁월하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영국 대학은 교사가 '탁월하다'고 남긴 기록을 존중합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이 옥스퍼드대를 갔습니다. …… 영국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가를 매우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은 마치 한국의 판사나 의사들의 판결문이나 처방전과 동급으로 교사들의 평가 기록을 취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337쪽 중에서

- 기획, 지은이 소개 -

기획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은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던 2008년 6월 출범한 국민 대중 운동 단체이다. 입시와 사교육으로 고통받아 온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 세대에 입시 사교육 고통을 끝내고 아이들을 입시 고통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을 단체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아깝다 학원비!>, <영어 헛고생!>, <찾았다 진로!> 소책자를 전국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고,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운동, 고교 체제 개편 및 대입 단순화, 채용 시장의 학벌 차별 시정 등 사교육을 줄일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및 회원 참여 : www.noworry.kr)

지은이 홍세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사유-실천 공동체 '가장자리'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격월간지 <말과 활>의 발행인이다.

지은이 황선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웨덴 감사원 및 국가 재무 행정원, 스웨덴 국립 교육청 간부로 일했다. 2011년 서울시교육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경기 교육청 초빙 연구 위원이다.

지은이 최영우

비영리단체 지원과 기금 조성 컨설팅 전문가이며, 현 모금 전문 기업 '도움과 나눔' 대표와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재정 자문 위원이다.

지은이 고병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고, 평생학습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안교육, 평생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등의 영역에서 강연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 서양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했다. 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교장 등을 지냈다.

지은이 김승현

승실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했다.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대안 정책 연구소 정책 실장과 영어 사교육 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은이 송인수

교사로 근무 중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 운동의 발전을 위해 2003년 퇴직, 2008년 좋은교사 대표직 임기 이후에 입시와 사교육 고통 문제에 대답하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창립했고 현재 공동대표이다.

- 차례 -

한국의 학벌 사회를 말하다 - 홍세화 9
선진국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 - 황선준 51
교사, 미래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다 - 최영우 101
점수, 등수 중심의 진학 지도를 벗어나라 - 고병현 159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자라는 자유의 교육 - 김상봉 199
입시 사교육 제로 그 해답을 찾다 - 김승현 273
새로운 교사 운동이 나타난다 - 송인수 325